



발간자료

• **퀀트 Risk Signal:** 지난 6월부터 차화정 확장 국면을 새로운 벤치마크로 제시한 가운데, 이번달 선행지수는 17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폭 기록. 다만 여전히 특정 산업에 국한된 제한적 경기 확장으로 후행지수 반등은 선행지수에 비해 여전히 더딘 모습. 이는 국내 경기 사이클이 아직 초입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일 가능성 시사

(계량분석 김경훈)

• **퀀트 Style Rotation:** 패시브 외국인 수급, 미국 증시センチ먼트, 기대인플레이션 등 주요 매크로 변수들이 증시 친화적으로 전환. 6~7월 성장주 아웃퍼폼 국면과 달리, 3개월 만에 대형 가치주 반등 환경 조성. 이번달 이익 확대와 교집합을 이루는 반도체·증권/보험·화장품·미디어·소프트웨어·IT하드웨어 업종 유망

(계량분석 김경훈)

• **Active Quant의 정석:**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BIG2의 추정치는 정체됐지만, 밸류에이션은 모두 Undervalued 상태. 동일 업종 내에서도 이익 확산보다 실적 차별화가 심화되며 각개전투 재개. 다수의 리포트가 발간된 삼성전기·해성디에스·셀트리온은 3분기에도 강한 추정치 향상이 이어지며 Long 포지션 생성

(계량분석 김경훈)

• **화장품 Weekly:** 고무적인 7월 수출 데이터와 함께 에이피알 메디큐브 미국 순위 재반등 확인. 아모레퍼시픽은 레드 잇츠 및 COSRX 기반 견조하나, 아마존 미국 top100 상위권 재고 부재로 모멘텀 제한. 달바글로벌은 아마존 유럽 MS 소폭 감소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 **자동차(Overweight):** 현시점 자동차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기아가 가장 높으며, 최선호주로 추천. P/E 6배, 순현금 22조원 (vs 시총 50조원)에 달해 강력한 안전마진 보유. 현대차와 기아의 7월 글로벌 도매판매량은 각각 31.8만대(YoY -5.1%), 29.8만대(YoY +13.4%) 기록. 7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7억달러(YoY +18%)를 기록해 4개월 연속 YoY 증가세를 시현

(자동차/이차전지 유지웅)

- **음식료(Overweight):** 미국은 중국산 라이신에 잠정관세(41.22~72.18%)보다 높은 73.37~139.65%의 확정관세 부과. EU의 대중국 관세부과를 했을 당시, 재고확보경쟁으로 EU 내 가격급등, 중국 내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을 보임. 잠정관세보다 낮은 확정관세가 부과되며, 중국산 라이신의 유럽유입, 가격하락으로 이어짐. 고율 관세로 중국산 유입이 제한되고, 미국 내 라이신 공급부족으로 고단사가 지속된다면 CJ제일제당에 긍정적일 것

(음식료/통신 이다연)

- **음식료(Overweight):** 음식료는 수요 비탄력적 필수재로, 실질소득 감소 국면에도 안정적인 판매량을 바탕으로 방어적 매력이 부각. 최근 주요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 단행 중. 롯데칠성(평균+5.3%)·농심(평균 +5.8%)·CJ제일제당(평균 +8%) 등 가격 인상.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해외 진출 확대로 업종 전반 주주환원 확대 중. KT&G와 오리온의 배당 및 주주환원 매력이 높음. 가격 인상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판매량 성장이 필요하며, 해외 판매가 증가하는 삼양식품·KT&G를 최선호하고 오리온을 선호

(음식료/통신 이다연)

- **현대위아 BUY/9.3만원:** 완성차의 3Q26 HMGMA 증산효과가 확인되며 주가 재평가 기대. 투자의견 BUY 및 적정주가 9.3만원 유지. 2Q26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2.4조원(YoY +8.0%), 504억원(YoY -10.5%) 기록. HMGMA의 스포티지 HEV 양산계획은 2H26 약 3만대 → 2027년 7만대 예정

(자동차/이차전지 유지웅)

- **현대제철 BUY/4.6만원:** 실적: 2Q26P 매출 6.1조원(YoY+2.7%)·영업이익 577억원(YoY-43.3%)으로 컨센서스 하회 — 원재료 투입원가 부담 지속,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111억원으로 QoQ 흑자전환. 평가: 연초 이후 판재류·봉형강류 판매가 각각 QoQ+3.7%/+5.9% 인상됐으나 원재료비 부담으로 판재류 스프레드 5천원 하락, OPM 0.2%로 낮은 수준. 하반기 전망: 3Q26E 매출 5.9조원·영업이익 1,296억원(QoQ+124.6%) 추정 — 자동차강판·조선용 후판 가격 협상 예정으로 평가 인상 가능, 철근은 저가 장기계약 소진과 스크랩가 하락으로 개선 기대. 밸류에이션: 적정주가 4.6만원 유지(2026E PBR 0.19배로 밴드 하단 근접), 데이터센터·반도체 공장 증설 등 국내 판매물량 확대도 우호적

(철강/비철금속 이정우)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3.5% HOLD : 6.5%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